3) 19세기 미국소설

19세기 미국은 독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시에 팽창해 가는 국토와 물질적 발전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한 시기이기도 했고 발전과 성장의 그늘이 깊어진 시기였기도 했다. 19세기 전반기의 미국소설은 그러한 미국적인 특징과 미국인의 모습을 그리려 했다. 이 시기의 소설은 오래되고 전통적이며 형식을 중시하는 유럽과 대비해서 미국적 자연을 닮은 순수하고 실용적이며 낙관적인 미국인의 원형 소설을 통해 형상화 하려했다.

19세기 중반의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초반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세기 중반의 미국은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도시화와 계층간의 갈등이 서서히 잉태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1861년에서부터 1865년까지의 남북전쟁은 미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형태의 주도권을 두고 대립했던 양상이 폭력적으로 흘러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산업과 노동력의 문제는 "노예제 폐지"를 두고 주력 산업의 형태에 따라 북부 주와 남부 주들 간의 서로 다른 입장의 충돌을 가져 왔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초기의 무한한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 사라지고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미국의 어둠이 짙어져 가는 시기를 알리는 전조가 되었으며, 문화 비평가 해리 레빈(Harry Levin)은 이를 "어둠의 힘"(Power of Blackness)라고 했다.

19세기 후반의 미국 사회는 변질된 "미국의 꿈"(American dream)과 물질적 성공을 탐닉하는 산업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의 시기였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미국의 꿈은 이미 물질만능주의로 퇴색해 버렸으며, 산업자본주의의 산적한 사회적 문제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미국 소설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사실적으로 다루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거나 직시하기를 외면하고자 했던 문제점들을 소설의 소재로 끄집어내어 폭로하고자 했다.

(1)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1789-1851)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는 1789년 뉴저지주의 벌링턴(Burlington)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으며, 그는 태어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설립한 뉴욕주의 쿠퍼스타운(Cooperstown)으로 이사를 갔다. 쿠퍼스타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13세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했지만 위험한 장난질로 인해 퇴학을 당했다. 그 후 상선의 선원이 되기도 했고, 18세엔 해군에 입대해 배를 타기도 했다.

쿠퍼는 30세의 늦은 나이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첫 소설인 『경계』(*Precaution*, 1820)는 익명으로 발표되었다. 1821년에 그의 두 번째 소설 『스파이』(*The Spy*, 1821)는 자신의 실명으로 발표한 첫 번째 소설이면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이후 발표된 쿠퍼의 소설은 미국적인 배경과 미국적인 인물을 실제사건과 자신의 상상력을 결합해 역사소설이란 독특한 장르를 개척하게 되었다. 늦게 소설을 쓰기는 했지만 쿠퍼는 생전에 40편 이상의 소설을 집필했다.

쿠퍼에게 작가로서의 명성은 안겨 주었으며 미국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았던 작품은 역시 "가죽각반 소설"(leather-stocking tales)이라고 불리는 5부작 소설이다. 쿠퍼는 1823년 『개척자』(*The Pioneers*, 1823)을 시작으로 『모히칸족의 최후』(*The Last of the Mohicans*, 1825), 『대평원』(*The Prairie*, 1827), 『개척자』(*The Pathfinder*, 1840), 『사슴 사냥꾼』(*The Deerslayer*, 1841)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 다섯 편의 연작은 미국의 광활한 자연과 그 속에서 백인과 인디언들의 다양한 인물상들과 개척기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 다섯 편의 연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호크아

이"(Hawkeye) 혹은 "레더스타킹"(Leatherstocking)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내티 범포"(Natty Bumppo)다. 네티 범포는 미국이라는 신세계에서 순수하고, 용맹스러우며, 자연을 수용하는 유럽과 차별되는 미국적인 새로운 인간형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가죽각반소설"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미국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도 실제 쿠퍼가 자신이 성장했던 쿠퍼스타운에서 만났던 인물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소설이라고 불린다. 다섯 편의 "가죽각반소설"이 출판된 순서와는 다르지만 소설은 주인공인 네티 범포의 성장과정과 경험을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장과 발전단계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다섯 편의 "레더스타킹" 소설 중 가장 나중에 출판된 『사슴 사냥꾼』에서 네티 범포의 나이는 21살이며, 『대평원』에서는 82살의 나이로 등장한다. 네티 범포는 "칭가츠국"(Chingachgook)이란 인디언 추장과 동지이자 친구로 등장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해 그는 미국의 자연과 교감하고자 하는 백인의 원형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모히칸족의 최후』는 1750년대 후반의 "프렌치 인디언 전쟁"(the French and Indian War)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군은 먼로(Munro) 대령이 지휘하고 있는 윌리엄 헨리(William Henry) 요새를 공격하고 있다. 한편 먼로 대령의 두 딸인 앨리스(Alice)와 코라(Cora)는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던컨 헤이워드(Major Duncan Heyward)의 보호를 받으며 위험한 숲을 지나고 있다. 이들 일행은 호크 아이(내티 범포)와 그의 인디언 동료들을 마주치게 된다. 호크 아이는 먼로 대령의 딸들과 그 일행들을 안전하게 폭포 근처의 동굴로 안내를 한다. 그러나 휴런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인해 앨리스와 코라 등이 인디언들에게 붙잡히게 된다.

호크 아이와 그의 동료 인디언들이 휴런 인디언들을 급습하여 납치된 먼로 대령의 두 딸들을 구출하고 휴런족들을 죽이지만 우두머리 인디언 마구아(Magua)는 도망을 친다. 이후 인디언들의 습격을 물리쳐 가며 이들은 윌리엄 헨리 요새에 도착한다. 이들은 요새를 포위하고 있는 프랑스군을 뚫고 요새로 잠입하는데 성공한다. 코라와 앨리스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요새의 상황은 나빠지고 지원군은 도착하지 않게 되어 곧 함락될 위기에 처한다. 이런 중에 먼로 대령은 코라가 자신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라는 것을 헤이워드 소령에게 밝힌다. 요새의 영국군들은 요새를 버리고 퇴각하게 되고, 프랑스군과 마구아의 인디언들이 이들을 쫓는다. 결국 영국군들은 프랑스군에게 전멸당하다시피하고 혼란 중에 마구아는 코라와 앨리스를 데리고 숲속으로 도망쳐 버린다.

호크 아이와 먼로대령 일행들이 마구아를 추적한다. 이들은 휴런족 인디언들 캠프에 붙잡혀 있는 앨리스를 먼저 구한다. 이들은 코라를 붙잡고 있는 델라웨어족 인디언들을 찾아 나선다. 결국 이들은 코라를 붙잡고 있는 마구아와 다른 인디언들을 찾아내어 물리치지만 그 과정에서 코라는 살해된다. 칭가츠국의 아들인 운카스(Uncas)가 코라를 살해한 인디언을 죽이지만 마구아가 그의 등을 칼로 찔러 죽인다. 호크 아이는 마구아를 쏘아 죽인다. 코라와 운카스의 장례가 치루어지고, 데라웨어족 인디언들이 경의를 표하는 가운데 칭가츠국은 아들의 상실을 슬퍼한다.

James Fenimore Cooper[1)]

(2)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

나다니엘 호손은 1804년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Salem)에서 출생했다. 그의 선조들은 종교적 이상을 가지고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었으며, 호손의 증조부였던 죤 호손(John Hathorne)은 당시 세일엄의 마녀재판을 주관했던 판사들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나다니엘 호손은 자신의 증조부가 마녀사냥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알고 이를 혐오해 자신과 분리시키기 위해 자신의 성에 w를 넣어 “Hawthorne"으로 사용했다. 호손의 아버지인 나다니엘 호손 시니어(Nathaniel Hathorne, Sr.)는 선장이었는데 황열(yellow fever)로 수리남에서 죽었다.

1821년 호손은 보도인(Bowdoin) 대학에 입학했다. 보도인 대학으로 가는 길에 그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피어스(Franklin Pierce)를 만나 친구가 되었다. 대학에서 그는 헨리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를 만나 교분을 나누었다. 호손은 보도인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인 세일럼에서 은둔의 시간을 보냈으며, 이후 보스턴에서 세관원으로 잠시 일하기도 했다. 보스턴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호손은 몇몇 단편작품들을 써서 잡지에 기고하기도 했는데 이시기에 집필된 작품으론 『영 굿맨 브라운』(*Young Goodman Brown*, 1835)과 『목사의 검은 베일』(*The Minister's Black Veil*, 1836)이 있다.

호손은 엄격한 청교주의 전통과 마녀사냥의 광기가 혼재한 세일럼의 역사적 환경을 몸소 경험하면서 성장했다. 특히 인간성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과 죄의식에 대해 호손은 음울하고도 깊이 있는 통찰을 작품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호손의 작품이 원죄의식과 인간 내면의 우울한 정신적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다크 로맨티시즘”(dark romanticism)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호손의 “다크 로맨티시즘”을 대표하는 작품이 『주홍 글씨』(*The Scarlet Letter*, 1850)이며, 이 작품은 호손의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홍 글씨』를 시작으로 호손은 이후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로맨스 소설을 연이어 발표했다. 1851년에 『칠박공의 집』(*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1851), 1852년에는 『블리스데일 로맨스』(*The Blithedale Romance*, 1852), 그리고 친구인 프랭클린 피어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영국대사로 임명되어 약 4년 정도 영국에서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호손은 작품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가 영국 대사직을 마치고 귀국하여 1860년에 『대리석 목신』(*The Marble Faun*, 1860)을 출판했다. 『주홍 글씨』부터 『대리석 목신』에 이러는 이 작품들을 호손의 4대 로맨스 소설로 평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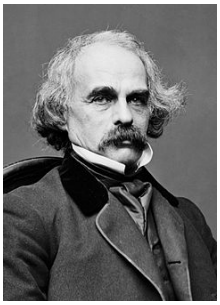
1) http://en.wikipedia.org/wiki/James_Fenimore_Cooper

호손은 로맨스를 일상적인 경험이 주는 개연성과 가능성을 중시하는 소설과는 아주 다른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다.[2)]

『주홍 글씨』는 17세기 보스톤 근처의 청교도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주인공인 헤스터 프린(Hester Prynne)은 가슴에 "간음"을 상징하는 "A"자를 달고 어린 딸을 안고 등장한다. 헤스터 프린은 나이든 남자와 결혼을 했고, 남편보다 먼저 미국에 도착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오기로 되어있던 그녀의 남편은 오는 도중 바다에서 실종되었다.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헤스터 프린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아이의 아버지는 밝혀지지 않은 채 그녀는 "간음"을 상징하는 A자를 가슴에 붙이는 형벌을 받게 된다. 어느날 로저 칠링워스(Roger Chillingworth)라는 약사가 마을에 정착을 하는데 그는 헤스터 프린의 실종된 남편이었다. 그는 헤스터 프린에게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면서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를 임신시킨 남자에게 복수를 계획한다.

헤스터 프린과 그녀의 딸 펄(Pearl)은 마을에서 떨어진 오두막에서 생활한다. 마을 사람들은 펄을 헤스터 프린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하지만 마을의 목사인 아더 딤즈데일(Arthur Dimmesdale)의 도움으로 이를 모면한다. 딤즈데일 목사는 마음에서 연유한 병으로 인해 가슴의 통증을 겪게 되고, 칠링워스는 이를 치료한다. 칠링워스는 딤즈데일 목사의 병이 자신의 아내 헤스터 프린의 비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칠링워스는 딤즈데일의 양심을 계속 자극함으로써 그의 고민과 마음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든다. 헤스터 프린은 마침내 칠링워스의 정체를 딤즈데일에게 알려준다. 헤스터와 딤즈데일은 딸과 함께 모두 같이 살기 위해서 유럽으로 도망치려한다. 숲속에서 헤스터는 A자를 떼어 버리는데 이를 본 딸 펄은 비명을 지른다. 헤스터가 다시 A자를 달자 펄은 진정하고 어머니에게 안긴다.

유럽으로 도망치기 하루 전날 딤즈데일은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 한편 헤스터는 남편인 칠링워스가 계획을 알아차리고 같은 배를 탈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설교를 마친 딤즈데일이 교수대 앞에서 헤스터와 펄을 만나자 격정에 사로잡혀 교수대로 올라가 자신의 죄를 대중들에게 고백하고 그는 교수대에서 떨어져 죽는다. 복수가 좌절된 칠링워스는 그로부터 1년 후 죽게 되고 헤스터와 펄은 마을을 떠나게 된다. 수년이 지난 후 헤스터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그녀가 살았던 오두막집에 머문다. 그녀는 여전히 가슴에 주홍글씨를 달고 있다. 펄은 칠링워스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유럽의 귀족과 결혼하여 유럽에서 살고 있다. 헤스터는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마을 사람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회복한다. 헤스터가 죽자 그녀는 딤즈데일 목사 묘지 근처에 묻히게 되었으며 그녀의 비석에는 "A"자가 새겨져 있다.



Nathaniel Hawthorne[3)]

2) Porte, Joel. *The Romance in America: Studies in Cooper, Poe, Hawthorne, Melville, and James*. Middletown, Conn.: Wesleyan UP, 1969. p. 95

3) http://en.wikipedia.org/wiki/Nathaniel_Hawthorne

(3) 허먼 멜빌(Herman Melville, 1819-1891)

허먼 멜빌은 1819년 뉴욕에서 출생했다. 어린 시절 무역상이었던 아버지를 둔 관계로 부유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울었다. 멜빌은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부양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형의 소개로 뉴욕에서 리버풀까지 운행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일했다. 1841년에는 케이프 혼을 돌아 남태평양으로 항해하는 "어쿠쉬넷"(Acushnet)호라는 고래잡이 포경선을 타기도 했으며, 이때의 경험이 이후 그의 대표작이 된 『모비딕』(*Moby-Dick*, 1851)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약 18개월가량의 포경선의 승선 경험은 『모비딕』에서 생생하게 반영되었는데, 선박용어 및 고래잡이와 관련된 전문지식 등이 소설을 더욱 사실감 있게 만들었다. 멜빌은 1842년에 마르케사스 군도에서 포경선 "어쿠쉬넷"을 떠나 3주 동안 타이피 원주민과 생활했다. 이때의 경험은 1846년 발표한 그의 소설 『타이피』(*Typee*, 1846)와 『오무』(*Omoo*, 1847)의 소재가 되었다. 멜빌의 해양 경험은 그의 포경선 경험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는 하와이에 머물기도 했고, 미해군으로 지원해서 전함을 타기도 했다. 특히 수병으로서 전함생활은 1850년에 발표한 『하얀 자켓』(*White Jacket*, 1850)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타이피』와 『오무』는 출판되자마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멜빌은 일약 인기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지만 생계를 해결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작가로서 인지도를 얻은 멜빌은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최고 재판관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쇼(Elizabeth Shaw)와 1847년 결혼했다. 멜빌 부부는 매사추세츠주 피츠필드 소재의 농장 에로우헤드(Arrowhead)를 구입해서 그곳에서 13년간 살았다. 멜빌은 에로우헤드 농장에서 집필에 몰두하면서 근처에 거주했던 나다니엘 호손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비록 그들의 친분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지적으로 고독했던 멜빌에게 호손과의 교류는 그에게 대단한 영감을 주었다. 바로 이 시기에 멜빌은 그의 불멸의 명작인 『모비딕』을 집필했다.

『모비딕』은 위대한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불멸의 명작들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모비딕』은 멜빌의 포경선 경험을 재료로 고래잡이와 항해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마치 포경과 항해 다큐멘터리와 같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설 『모비딕』은 심오한 상징으로 충만한 작품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흰 고래"는 다양한 상징의 덩어리로 이해될 수 있고, 이를 추적하는 에이하브(Ahab) 선장의 집착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과 우의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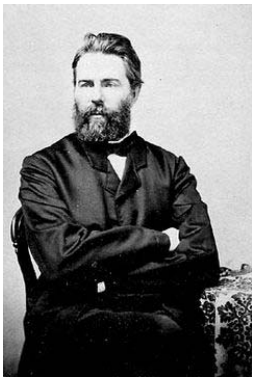
『모비딕』은 관찰자이자 서술자로 등장하는 이쉬마엘(Ishmael)의 서술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된다. 고래잡이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쉬마엘은 매사추세츠 뉴베드포드(New Bedford)에 있는 스파우터인(Spouter-Inn)에서 폴리네시아 출신 선원인 문신을 한 퀴케(Queequeg)를 만나서 함께 고래잡이 배 피쿼드(Pequod)호를 탄다. 피쿼드 호의 선장인 에이하브는 배를 탄 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다.

배가 출항한 후 모습을 드러낸 에이하브 선장은 무언가에 홀린 듯한 괴기스런 인상을 주고 있었으며 그의 한 쪽 다리는 의족으로 걸을 때마다 특이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선원들 앞에서 이 항해의 목적이 흰 고래 "모비딕"을 찾아 죽이는 일이라고 연설한다. 이를 위해 선장은 모비딕을 잡을 자신만의 비밀선원조직을 데리고 왔다. 항해 중 다른 포경선을 만나지만 선장의 관심은 오직 모비딕에만 있고 포경선들간에 관례적으로 있었던 상호 방문이나 교류의 모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피쿼드호가 태평양으로 들어가자 퀴퀘는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그는 목수에게 자신의 관을 주문한다. 퀴퀘의 병세

가 호전되고 그의 관은 소지품을 넣어두는 옷장으로 사용된다.

피쿼드호는 항해 중 다른 포경선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모비딕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에이하브 선장은 이제 모비딕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다. 마침내 에이하브 선장은 모비딕을 찾아낸다. 선장이 데려 온 고래잡이 선원들로 하여금 모비딕을 잡으려 하지만 그들 모두 모비딕의 제물이 되어 버린다. 선장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파멸까지도 수용할 태도로 집념을 불태운다. 모비딕을 발견한 후 피쿼드호에서 내린 고래잡이 보트들이 모비딕에 작살을 던지기위해 접근하지만 모두 모비딕의 무자비한 힘에 박살나 버리고 오직 에이하브 선장의 보트만 남게 된다. 그러자 보비딕은 피쿼드호로 돌진해서 배를 박살내 버린다. 선장이 모비딕을 작살로 찌르는 순간 작살에 연결된 밧줄이 선장을 휘감아 선장을 바닷속으로 끌고 가 버린다. 피쿼드호는 침몰하고 모든 선원들이 사망을 하지만 오직 이쉬마엘만이 퀴케의 관을 구명정처럼 붙들고 생존한다.

허만 멜빌의 『모비딕』은 단순한 고래잡이나 광기에 사로잡힌 선장의 고래에 대한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소설은 고래잡이와 항해에 대한 풍부한 사실적인 경험으로 가득하지만 작품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과 주제는 대단히 우의적(allegorical)이라고 할 수 있다. 에이하브 선장의 모비딕에 대한 집념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한 가지 목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상징할 수도 있다. 때론 그 목표가 소망하는 사람을 절망시키거나 파멸시키기도 하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흰 고래 모비딕 역시 비유와 상징의 덩어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이 정복하고 싶어 하지만, 오만한 인간에게 영원히 적대적인 자연일 수도 있고, 인간의 욕망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영원한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징할 수도 있다.



Herman Melville[4)]

Chapter 1: Looming

Call me Ishmael. Some years ago—never mind how long precisely—having little or no money in my purse, and nothing particular to interest me on shore, I thought I would sail about a little and see the watery part of the world. It is a way I have of driving off the spleen and regulating the circulation. Whenever I find myself growing grim about the mouth; whenever it is a damp, drizzly November in my soul; whenever I find myself involuntarily pausing before coffin warehouses, and bringing up the rear of every funeral I meet; and especially whenever my hypos

4) http://en.wikipedia.org/wiki/Herman_Melville

get such an upper hand of me, that it requires a strong moral principle to prevent me from deliberately stepping into the street, and methodically knocking people's hats off—then, I account it high time to get to sea as soon as I can. This is my substitute for pistol and ball. With a philosophical flourish Cato throws himself upon his sword; I quietly take to the ship. There is nothing surprising in this. If they but knew it, almost all men in their degree, some time or other, cherish very nearly the same feelings towards the ocean with me.[5)]

5) *Moby-Dick* 첫 장 시작부분.
http://en.wikisource.org/wiki/Moby-Dick/Chapter_1